

“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 · 축하”

14개 시군 학생참여위원 ‘챌린지 기획단’ 꾸려 SNS로 선거참여 독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첫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이 SNS로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만 18세 유권자들이 스스로 ‘챌린지 기획단’을 꾸려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선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챌린지 기획단’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심의위원회와 14개 시군 학생참여위원 등 학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내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틈틈, 선거법 알아보기’, ‘꼭꼭, 공약 체크하고’, ‘꼼꼼, 투표 참여 준비하고’, ‘꼭꼭, 투표 참여하고’, ‘함께, 챌린지 참여해요’ 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

참여방법은 챌린지 소개글과 대표사진, 손글씨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다음으로 이어갈 친구 3명을 지목하면 된다.

단, 챌린지 참여시 특정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단어나 그림, 몸짓 손동작 등은 금지되며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채건(김제여고 3) 학생은 “유권자가 되었음에도 관심이 없어 자신이 유권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이들에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선강(전일고 3) 학생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SNS챌린지에 적극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챌린지 기획단’은 사전투표일(4월 10~11일)에도 함께 홍보하며 투

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선거다”며, “우리 학생들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권리를 뜻깊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민주시민교육 학생심의위원회와 14개 시군 학생참여위원 등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챌린지 기획단’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SNS로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챌린지를 진행한다.

“스포츠복지 체계 구축”

박종운 전주시체육회장, 체육회관 건립 등 공약

“전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스포츠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종운 초대 민간 전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생활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실현’을 강조했다.

3선 시의원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박 회장은 전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 전 전주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전주시체육회관 건립 추진, 회원종목단체 회장단 및 사무국장단 모임 법제화, 직원 및 지도자 처우개선, 협회장비 대회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고, 현재 업무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내실있는 체육회 운영을 위해 직원 처우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업무과약을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체육행사를 비롯해 추진 사업들은 많지만 담당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및 조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전주시체육회관 건립에 대해 밝혔다.

박 회장은 시민들의 체육 참여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과,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등을 갖춘 체육



박종운 초대 민간 전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생활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실현’을 강조했다.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체육은 복지도 건강이며 전주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즐겨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확충돼야 하며 통합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회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목단체와의 화합과 소통을 하겠다”며 “신진형 체육행정을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아름다운 캠퍼스 사계 담아봐요~

군산대 사진 공모전, 11월 9~20일 접수... 1인 2점까지

군산대학교가 아름다운 캠퍼스 정경 및 역동적인 대학생활 모습 등을 담은 “군산대학교 사진 공모전”을 기획하고, 출품작을 공모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올해 8회째로 해마다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까지이고, 출품작은 군산대학교를 소재로 한 국내외 미발표작이면 된다.

응모자격은 군산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군산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이면 모두 가능하다.

사진 주제는 군산대학교의 봄 그리고 우리(인물사진), 계절별 다채로운 캠퍼스 풍경사진, 열정이 가능하고 희망적인 모습이 담긴 인물사진, 각종 동아리 활동 및 해외봉사활동, 교내 행사 관련 열정적인 활동 모습, 강의 및 실험·실습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 학교의 상징물·건축물 이 포

함된 경관 등 군산대학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시상 및 발표는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으로, 출품작은 1인 2점까지 가능하다.

상금은 총 580만원으로 20편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군산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봄 풍경사진과 인물활동사진에 가산점이 주고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여 11월에 사진을 접수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캠퍼스의 사계가 담긴 작품들이 골고루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출품작 및 당선작을 대학 홍보물 제작 등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대외협력본부(☎ 063-469-7320)로 문의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대 김영숙 팀장, 중기부장관 표창

산학협력 사업 발굴·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 지원 공로

김영숙 전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팀장(사진)은 최근 산학협력 사업의 발굴과 사업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동안 산학협력 분야에 매진하면서 전북대학교의 우수한 인·물적 인프라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발굴에 앞장서 왔다.

2008년 전북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 입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을 성실이 수행해 온 김 팀장은 중소기업지원 위한 기관사업 발굴에 앞장서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TFT 참여를 통해 2012년 산학협력중점사업 호남권역 주관기관과 연구마을지원사업(2014년, 2017년),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2018년, 2019년) 권역 주관기



관 선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를 통해 총 137억 원의 사업 수주 실적을 올렸고, 또 165건의 특허출원과 162건의 디자인 및 시범인증, 마케팅 판로개척 83건의 기술적 성과를 이뤄내는 한편 신규고용 152명, 기술사업화 184건(85억) 등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김영숙 팀장은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의 꾸준한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전북대학교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기술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과 2012년 연속 우수 코디네이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지리산권 스포츠종합훈련장 건립”

이강래 국회의원 후보 체육 관련 공약에 전북체육회 “환영”

전북체육회는 이강래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의 체육 관련 공약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이강래 후보는 지리산권 스포츠종합훈련장을 건립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과 관련 전북체육회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 후보가 남원 운봉해발 500m 고지대에 지리산권 스포츠종합훈련장을 건립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훈련장이 조성되면 국내외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훈련장이 조성되면 전문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생활체육도 더욱 활성화된다”며 “나이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남원과 전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상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 돼 훈련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